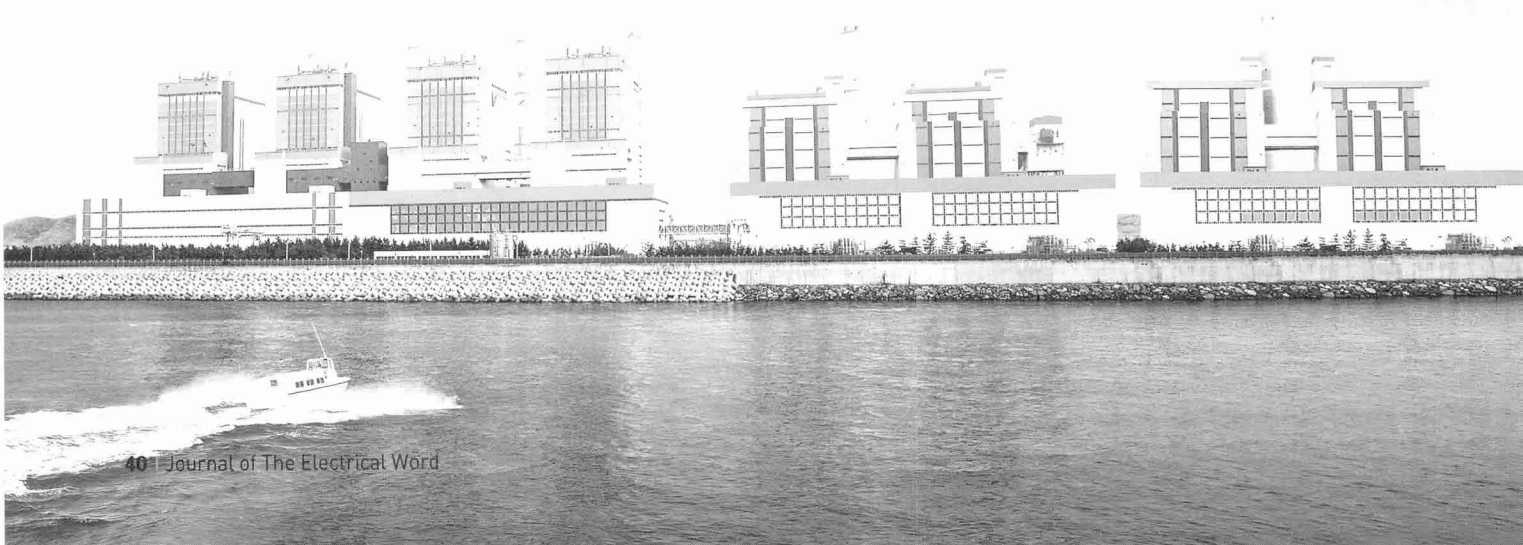


한국서부발전 중소기업지원 현황 및 계획

한국서부발전(주) 자재처 중소기업지원 김현수 팀장

한국서부발전(사장 손동희)은 2001년 4월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되어 “인간·기술·환경의 조화로 최고의 에너지를 생산하여 사회에 공헌한다”는 기업이념과「World Best 3E Creator」라는 비전아래 에너지의 고품질화, 저가격화를 통한 고객만족과 사회적인 가치창조를 지향하는 전력생산회사이다. 이 회사는 국내 최대 석탄화력 발전단지인 태안발전본부를 비롯해 평택, 서인천, 삼랑진, 청송 등 5개 발전단지에서 국내 총 발전설비 용량의 약 13% 수준인 888만kW의 발전설비를 가동하여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 전력수급 안정과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9년 11월 군산에 70만kW급, 2012년 12월에 가로림조력 발전설비 준공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손동희 사장은 작년 4월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불확실한 미래를 새로운 시장기회로 선점하기 위해 새로운 비전체계를 Vision 2020(3 Plus 10)으로 정하였다. 이것은 손사장의 임기인 3년과 향후 10년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기비전인 “World Best 3E Creator”는 Energy, Environment, Expertise이라는 3가지 축을 바탕으로 2020년에는 매출액 5조원 달성과 설비용량 1,700만kW, 신재생에너지 및 해외사업 비중 20%, 경영품질 6시그마 수준 달성 등 선진경영시스템을 갖춘 세계적인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영방침도 장기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Challenge & Make a Difference”로 설정하여 서부발전의 현재 모습 및 경쟁자로부터의 차별화를 시도함으로써 2010년에는 명실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발전회사로 도약할 계획이다.



서부발전은 지난 2005년, 본사와 산하 사업소에 중소기업지원 전담 조직을 창설하고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발전설비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의 80% 이상을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연간 2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협력연구개발사업과 기



술개발 촉진지원, 마케팅지원, 혁신역량 강화지원 등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열어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력연구개발사업은 발전5개사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서부발전에서도 ▲발전용 기자재 및 핵심부품의 연구개발 ▲발전분야 시공품질 관련 신기술·신공법, 최신 장비 개발 ▲발전분야 운용기술 향상을 위한 S/W 및 H/W 개발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해 5억원 한도내에서 총 연구비의 75%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6년에는 서부발전이 지원한 (주)STB가 세계 최초로 “계통연계형 대용량 스마트 배터리 개발”을 성공하여 신기술 인증('06.12)을 획득하였고 태안화력발전소 전자통신설비에 적용하여 기술과 성능을 인정받아 발전설비의 비상용 전원설비를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 대용량 스마트 배터리 개발 성공으로 향후 한전내 도서전화사업 및 신재생발전설비에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해당업체의 매출액이 향후 3년후에는 약 700억원으로 증대가 예상되는 등 중소기업의 사업관리와 품질관리 능력, 실증시험 지원, 판로확대 등을 적극 지원하여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모범사례를 창출하였다.

또한 서부발전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서 ISO와 CE 등 품질인증 획득에 드는 비용과 지적재산권 출원, 신기술 및 성능인증 획득, 산학협력 기술 자문과 시험장비 사용료 등을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특허 등 보유기술 이전 사업화는 대상기업의 수용 인프라만 충분하다면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부발전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한 제품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외 전시회에 한도별로 부스 임차료 및 제품 운송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시 상담 경비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해외 수출을 위해 제작하는 카달로그(영·중·일어)

및 영문홈페이지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도 연간 1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75%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와 중동시장에 대한 중소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기계산업진흥회, KOTRA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플랜트 기자재 유력 발주업체를 초청하여 수출 및 벤더등록 상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서부발전이 또 하나 내세우고 있는 중소기업 기 살리기 프로젝트는 바로 경영체질 개선·컨설팅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되는 중소기업의 경영체제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컨설팅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도 줄기차게 내놓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의 대표적 사례지만 업계의 호응은 그리 좋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가장 효과적인 컨설팅을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의 공개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꺼려하는 기업문

화가 팽배하고 있는 이상 다소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하지만 서부발전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경영 체질 개선이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부발전 홈페이지에 중소기업지원 업무만 특화시킨 섹션을 분리해 도움의 손길을 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이곳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안내와, 각종 신청서식 다운로드, 애로사항 접수, 지원 신청 등이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있다.

한편, 서부발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새로운 상생협력 모델인 성과공유제의 발전회사 주관사로서 발전회사에 성과공유제가 정착되고 확산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성과공유제 품목을 3.5억원 구매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서부발전은 고유의 성과공유제를 추진하여 성과공유제가 중소기업 지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부발전은 기존에 운영중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향상하고 생산성 제고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할 예정이다.